

곡성군, 주민건강 맞춤형 서비스 제공 주민 '호응'

농업인재활센터·치매안심센터·건강증진프로그램 건강지킴이 역할



곡성군은 농업인재활센터와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주민건강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해 11월 전남에서 최초로 문을 연 농업인재활센터는 농한기를 맞아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로 북적이고 활기가 넘쳐나고 있다.

전국 방송 등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타 지자체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어 재활센터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곡성군은 농업인구가 80%로 타 지역에 비해 장기간 농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으로 재활센터 운영을 통해 많은 주민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재활센터를 이용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3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모두 우수한 평가가 나왔고 이용객 모두 '엄지척'을 표시하며 재활 서비스에 만족했다.

재활센터 운영 초기엔 이용객이 하루 1백 명에 가까워 장소가 비좁고 장비가 부족한 일도 벌어지기도 했지만 체계적 관리를 통해 불편함을 없앴다.

1년이 지난 현재 총 이용자는 약 1만 4천명으로 1일 평균 6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주민 편의를 위해 군내버스가 의료원 앞에 정차토록 하고, 의료 형평성을 감안해 원거리에 위치한 10개 면을 분기별로 순회하며, 지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매일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전문 재활장비와 맞춤형 재활인력을 갖춰 주민이 만족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인 부담없이 간편한 등록 절차 후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이용 할 수 있다.

특히 대학병원과 MOU를 체결해 실질적인 농업인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연구에 공동대처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으며, 전남과학대학교와도 협업체를 구성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앞으로 부족한 장비 보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 전문 인력을 집중 배치해 주민 건강증진에 앞장 설 계획이다.

또한 군은 지난 12월 1일부터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치매안심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 우리나라 치매 유병률은 10.2%로 65세 이상 노인 10명중 1명이 치매환자이고, 국민 25가구 중 1가구가 치매가족이다. 무려 4%의 국민이 치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치매안심센터는 이러한 치매 관련 문제를 국가가 나서 책임지는 국

가정책의 일환이다.

곡성치매안심센터는 곡성군보건 의료원 부지 내에 330.58㎡ 규모로 2018년 9월 완공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립 전까지 보건의료 원내에 우선 문을 열고 치매상담, 등록·관리, 조기검진, 치매지원서비스 인지도향상프로그램 운영 등 유기적인 치매안심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를 통하여 치매 중증으로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치매지원서비스로 가족의 부담 부담을 경감시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치매국가 책임제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농촌 목욕장과 연계한 '농어촌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민 건강을 지켜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원·스톱서비스'(목욕→운동→건강검진·진료)제공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주 2~3회 11개월 과정으로 9,968명이 요가, 풍물, 웃음체조, 실버댄스, 노래교실 등에 참여하여 신체활동증진 등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다.

보건의료원은 건강진단팀(치과의사, 간호사, 운동지도자)을 구성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인 음식 싱겁게 먹기, 시린이 예방 불소도포, 건강한 음주하기, 대사증후군 관리하기 등 주제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지속적으로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와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군민들의 건강을 지켜나갈 방침이다.

유근기 군수는 "주민 건강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강진청자축제, 2018년 대한민국 최우수축제 선정

프로그램 참신성 호평...국비 2억원 확보

강진군은 강진청자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대한민국 최우수축제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45번째로 열린 강진청자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6년 연속 최우수축제로 선정됐다. 강진군은 이번 선정으로 국비 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제45회 강진청자축제는 여름철 시원하고 어린이와 온가족, 외국인이 함께하는 행사로 진행했다.

행사장에 초대형 워터 슬라이딩을 설치하고 점포방기 등 관광객의 이목을 사로잡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흙, 불, 사람'으로 대표되는 청자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축제장 시설물과 경관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축제장 동선을 체험존, 놀이존, 판매존으로 일원화시키고, 아이들과 엄마들을 위한 쉼터, 샤워장, 물건 보관함 등을 설치했다.

명품청자 전시·판매장 조성, 도예촌 조성사업 시설물을 축제장과 연계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개막식을 간소한 대신 화북가마 불지피기, 청자마임 길놀이, 고려청자 탄생 스토리를 주제로 공연으로 진행한 퍼포먼스가 참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올해 청자축제는 기후도와 다산초당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되면서 그 어느해보다 전국적인 관심을 많이 받았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맞는 축제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최제영 기자

목포항구축제 '문체부 유망축제' 선정

파시·삼학도 테마...국비 8000만원 확보

목포항의 전통역사 자원인 '파시'와 '삼학도' 등을 테마로 한 '목포항구축제'가 2018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됐다.

목포시는 '2017 목포항구축제'가 문체부 평가 결과 '문화관광축제 유망축제'로 선정돼 국비 8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신명나는 파시한편'이란 주제로 열린 올 목포항구축제는 파시 재현을 위해 흑서기인 여름을 피해 가을에 처음으로 개최됐다.

국내 유일무이의 '목포항구축제'

는 1897년 개항 전·후 문물이 몰려드는 목포항의 옛 영광과 부흥을 재현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주민들의 참여로 함께 만든 '파시 생활상'이 심사위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다.

목포항에 '파시'가 있다면 이난영 수목장이 있는 삼학도 중앙공원은 '추억과 향수를 테마로 꾸며 축제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향후 발전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목포항에서 진행했던 전통시



장 파시와 삼학도 역사 주제는 다른 축제에서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신선한 축제라는 평가를 받았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난 11년간 여름에 개최됐던 목포항구축제를 가을로 바꾸면서 모두가 즐기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면서 "국비지원은 물론 국내외 홍보와 마케팅 지원을 받아 내년 축제는 더욱 새롭고 재미있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암군, 서울시와 함께 대봉감 관측활동 나서

우수성 홍보·생산농가 판로개척...4.3톤 판매 성과



영암군은 지난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서울시 송파구 잠실 환승센터에서 서울시와 함께 대봉감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서울 도시민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봉감 홍보와 가공품인 감말랭이 시식회를 개최하여 영암 대봉감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하는 동시에 판로개척에 나섰다.

영암군의 대표 농산물인 대봉감은 비타민C가 껍질 2배, 사과 6배이며, 폴리페놀 성분으로 항산화 기능이 있어 피부 노화방지, 고혈압 예방, 숙취해소에 좋은 겨울철 건강식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

만, 전년도에 비해 30% 이상 수확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폭락하여 농민들이 큰 고충을 겪고 있다.

이에 영암군에서는 서울시와 함께 도·농 상생하는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농가의 판로망을 확보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번 대봉감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번 직거래 장터에는 서울시에서 장소제공 및 할인권 배부, 톨렛을 활용한 경품·할인 이벤트 등 대봉감 판촉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소비자로부터 높은 인지도와 호응을 얻어 대봉감 4.3톤 및 감말랭이 670kg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은홍 기자

목포시 내년 1월 3~4일 조위상승 '해수침수 방지'

철저한 대비 요구

목포시는 내년 1월 3~4일(오전 2~5시) 사이 바닷물 수위가 5m 이상(조석표상 3일 최고 4.96m)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조위 상승에 따른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배수문, 하수문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해안저지대는 현지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침수 경계지역인 해안저지대는 차량 침수피해가 없도록 주·정차를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상 2.0~4.99m 이상일 경우 해수 위험일로 지정해 시민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피해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다.

◆ 광주지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